

모 두 발 언

2026. 2. 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 대 영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5,000선을 돌파하며,
우리 자본시장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조성 추진과
주주가치 제고 노력, 기업 실적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우리 자본시장이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기업 성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믿음 없이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핵심 과제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ESG 공시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II. 그간 추진 경과와 최근 국내외 동향

최근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ESG 공시를 제도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을 취하고는 있지만,

ESG 정보를 공개하여
투자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한 만큼
ESG 공시의 제도화는
미뤄둘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2035까지 '18년 대비 국가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25.11월)

이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ESG 공시 제도화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논의하고 마련하고자 합니다.

Ⅲ.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향

① [기준] 먼저, 공시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토대로 하면서도
제조업 기반의 우리 산업의 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부탄소가격, 산업기반 지표, 기후 외 공시는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

공시기준 초안이

'24.4월에 공개된 만큼,

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급망 전반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시,

즉 스코프3*에 대해

여전히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scope1) 직접배출, (scope2) 전기 등 관련 간접배출, (scope3) 공급망배출

공시 실효성을 위해

스코프3를 포함하도록 추진하면서,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면책과 함께 공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체계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② **[대상]** EU·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공시 역량이 충분한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공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EU) '23.7월 기준 확정, '25년부터 대기업 공시중 → '28년^{FY27}부터 공시대상 등 조정,
EU 내 순매출이 4.5억유로 이상이고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있는 EU 역외기업도 '29년^{FY28} 공시
(日) '25.3월 기준 확정, '27.6월^{FY26} 시총 3조엔 이상 프라임상장사(68개사)부터 공시

③ **[시기]** 최초 공시시기와 관련해서는,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에서 기후공시 의무화가 보류된 상황이지만,

EU에서는 이미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도 내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하여

공시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년부터 EU 역외기업의 공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종의 테스트베드처럼
국내에서 미리 공시를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④ **[채널]**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재에 따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소 공시로 우선 운영하고
추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IV. 마무리 말씀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공통의 언어를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로드맵 마련과 그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